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6 13. (화)	담당부서	산업부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박찬기 미주통상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유의택 사무관(044-203-5654)

대미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 점검

- 美 무역적자 분석 및 철강수입 안보 영향분석 행정명령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**로 **「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」**를 개최하여 **관계부처 국·과장들 참석** 하에 **對美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**에 대해 논의하였음

* 일시 및 장소: 6.13(화) 14:00~15:30, 정부서울청사
* 참석: 기재부, 외교부, 문체부, 국토부, 농림부, 해수부, 식약처 등 20여개 부처

□ 이 차관보는 최근 미측의 **무역·통상 관련 행정명령**, 철강 등 **수입규제 강화**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**범부처적**으로 집중적인 **對美 통상 대응**이 필요함을 강조함

○ 특히, 현재 진행 중인 **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, 全 무역협정 재검토,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** 등은 향후 미측의 **對韓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**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

□ 먼저,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**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**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함

○ 정부는 범부처 **「美무역투자분석TF」**를 구성(4.14)한 이후, **정부 의견서*** 제출(5.10), 美 상무부 **공청회 참석**(5.18), **美 정부대상 설명(6.6)**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함

* 美 무역적자 증가(11년 116→ 16년 233억불)는 거시적·미시적 측면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**한미FTA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**
  - **거시적**으로는 **미 경제의 확장** 및 수요 증가, **한국 경제의 불황**이 주요 원인
  - **미시적**으로는 한국의 수출증가가 큰 자동차, IT제품 등은 FTA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이거나 관세변화가 없던 품목으로 對美투자 확대에 따른 **투자연계형 수출** 등이 주요원인

○ 주요국들에 대한 무역적자 분석 결과가 **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**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**對美 모니터링을 강화**하고 철저히 대비키로 함

□ 반덤핑·상계관세 등 **수입규제**가 강화되는 **철강**부분에 대해서는 **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분석**이 진행되는 바, 그간의 대응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측과의 협의결과를 공유함

○ 그간 정부는 협회 등 업계·전문가가 참여하는 **민관합동 TF** 운영, **공청회**(5.10, 업계) 참석 및 **정부의견서***(5.31) 제출, **美 의회 대상 설명**(6.6)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

* 한국산 철강 수입은 ❶美 전체소비의 3% 내외에 불과하며 ❷미국의 반덤핑/상계관세 등의 영향으로 36% 가량 감소하여,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음

○ 당초 '18.1월 완료 예정이었던 안보영향 분석이 **'17.6월말로 앞당겨질수 있으며**,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 조치가 **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**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

○ 이에 **6.14(수)** 민관 공동으로 **「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2차 회의」**를 개최하여 예상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함

※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(☎ 044-203-5650), 유의택 사무관(☎ 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6-16 13:22:35